

자료제공 : 2023. 12. 19.(화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관리과

도로관리과장

김만호

02-2133-8150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2쪽

도로관리팀장

윤인식

02-2133-8152

서울시, 19일(화) 퇴근길 눈 예보로 제설 비상근무 1단계 돌입

- 19일(화) 저녁 1~3cm 눈 예보... 13시부터 시·자치구 등 1단계 비상근무
- 제설차량·장비 전진배치, 제설함 제설제·장비 보충 등 제설 사전준비 철저
- 영하권 기온에 퇴근시간대 눈이 예보된만큼 도로 결빙 대비 보행자 교통안전 주의 당부

- 19일(화) 오후 18시부터 서울에 1~3cm의 눈이 예보됨에 따라 서울시는 이날 13시부터 제설 비상근무(1단계)를 발령하고 제설차량과 장비를 전진 배치해 강설에 대비한다고 밝혔다.
- 시는 서해지역 강설 이동 경로에 설치된 폐쇄회로(CC)TV를 통해 강설 징후를 사전 포착해 서울에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하고, 인력 4,635명과 제설장비 1,168대를 투입해 강설에 대비한다.
- 골목길, 급경사지에 비치돼 있는 제설함에 제설제와 장비를 보충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, 내 집 앞,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동참도 당부했다.

- 또한 무엇보다 도로 결빙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. 연일 계속되는 영하권의 추위에 퇴근 시간대 짧은 시간에 1~3cm의 눈이 내리면, 주요 간선도로와 주택가 골목길 등에 결빙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. 시는 차량운행 시 운전자는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하고, 보행자는 낙상사고 등에 특별히 유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.

-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“강설로 인한 퇴근길 시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”면서 “기온이 낮은 상태에서 눈까지 내리면 도로 결빙 구간이 있을 수 있으니, 안전을 위해 개인 차량 운행은 되도록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”라고 말했다.